

■ 박근혜후보 선대위 이정현 공보단장

“호남 민심 급변… 두자릿수 지지율 자신”

호남은 아직까지 새누리당의 정치적 불모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은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대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을 지역 민심이 알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두 자릿 수 이상의 지지를 확보를 자신하고 있다.

박 후보 선대위에서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대위에 광주·전남 등 호남을 상정할 수 있는 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그렇지 않다. 선대위 핵심만 보더라도 김종인(순창) 국민행복위원장이 있고 한광우(전주)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헌경재 추진단장은 김광우 박사(광주)가 맡고 있다. 또한, 광보단장에 이정현(곡성), 국방정책에 김장수(광주), 조직총괄에 이성현(영광), 문화특보에 박명선(해남), 정책위의장에 진영 의원(고창) 등이 포진해 있다.

특히, 영·호남, 진보와 보수,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 등이 어우러져 탕



선대위에 호남인사 포진 국민대통합 의지 반영

광주·전남 문화 산업·공사립대 거점대학 육성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호남의 암도적인 지지로 집권한 후엔 “이회창 싫어서 찍은 것”이라고 가슴에 못 박은 얘기였다. 열린우리당은 만들어 DJ 정신을 잊고 있었던 민주당을 데려와 배제했다. DJ 정권을 계승한다고 해놓고 선 대북송금 특검 등을 실시했다. 인사에서는 당시 호남 출신 수석이 ‘사무관 인사도 하나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을 통해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둘러서고 배신당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수명을

다했다는 느낌이다. (17대 대선에서) 530만 표로 죽으면 스스로 죄신하고 변혁해서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하지 않느냐. 127석을 가진 정당이 외부에 있는 무소속 후보에 의해 정치쇄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을 자기 당으로 불러 겨루자는(후보단일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정치를 80년대로 되돌리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논의는 오로지 ‘권력 빼앗아서 나눠먹자’는 것이다.

-지역 민심을 어떻게 보는지.

▲ 호남 민심이 현명한 판단에 나서고 있다고 본다. 호남 출신 대선 주자들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분산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에 못样板 뭐가 있느냐. 안철수 후보가 무슨 관계가 있고 문재인 후보에게 무슨 대단한 덕을 봤

다고 몰표를 주겠느냐는 것이다. 표에 있어 분산 투자도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집권한다면 당당히 요구하면 된다. 배려가 아닌 당당히 요구하는 정치를 호남도 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몰표를 주고 다른 정당이 집권하면 배려해달라고 구걸하느냐.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지역 지지를 이 두자릿 수를 넘을 것으로 보는지.

▲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박 후보는 탕평 인사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호남 민심이 평가해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지난 4·11 총선에서 광주에서 이정현이 39.7%, 전북에서도 36%(정운천)의 지지율이 나왔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민심의 변화다.

-박 후보가 대통령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 관계자들과의 만남 계획은.

▲ 박 후보는 5·18 행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대표 시절에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이끌고 묘역을 참례했다. 5·18 관계자들과 후보가 직접 나선 것은 아니지만 물밀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거 종사자 교육

온 1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광주·전남·전북 선거담당 공무원교육이 실시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4개월째 반쪽의회 운영

구의회 무용론 제기

시민단체 “의정비 반납하라”

광주 광산구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에 따른 갈등으로 4개월째 반쪽의회로 운영되는 등 제역할을 못하자 지역민들 사이에 구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의회가 지난 7월 후반기 의장 선출에 따른 후유증으로 10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현 차경섭 의장을 지지하는 비주류족과 반대 입장인 비주류족으로 나뉘어 4개월째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마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의사일정 등 각종 안건 등이 의장 직권으로 결정되는 등 반쪽의회로 전락한 상태다.

이 과정에 지난 15일 개최된 제 187회 임시회에서 비주류족이 운영위원 선임권을 또다시 비주류족의 반대로 불구하고 원안 가결하자 비주류족이 이에 반발,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하는 등 한치도 양보없이 맞섰고 있다.

지역민들은 구의회의 이같은 장기

의원의 원칙'에 따라 그동안 지급받은 의정비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구의회의 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의정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광산구시민연대 배영모 수석대표는 “성남시나 서울 중랑구의회의 경우 광부간의 지급된 의정비를 의원들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며 반납하고 있다”며 “광산구의회도 과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의정비 반납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경섭 의장은 “현재 일부 의정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정비를 반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전체 의원 15명 가운데 차경섭 의장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 5명 등 9명이 주류족으로 분류되는 반면 차 의장의 의장 선출에 반대했던 민주당족 6명은 비주류족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승렬기자 srchoi@

“文-安 단일화 가정해 득표전략 짜야”

광주 온임태희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의장



하다”고 차기 정부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의 중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어 “과거 정권의 광주

주 문화수도,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육성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화, 예술, 스포츠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투자의 최적지는 호남”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황우여 ‘영호남 화합 돌탑쌓기’ 동참

인재 고루 등용 견의



영남에서 3분의 1, 총청 등 중부권에서 3분의 1씩 인재를 기용하는 등 인사 탕평책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견의하겠

다”고 말했다.

총연합회는 “대한민국 민주운동의 시발점인 4·19 혁명이 광주에서 최초로 시작됐다”며 “4·19 혁명 바른 역사 세우기와 통일을 위한 1000만인 서명 운동에 새누리당이 적극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특검, 이시형 등 10여명 출금… 이상은 전날 출국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

은 16일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 10여 명을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가 필요한 사건 관계자 대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이시형씨가 포함됐으나 이 대통령 내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시령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은 다스 회

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이 회장은 특검 수사개시일 하루 전인 15일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근린주택

▷ 동구 소재동 준주거지역 5층상가주택 대지561㎡ 건물1440㎡ 감정가12억4천 최저가8억7천

▷ 서구 치평동 역세권 5층상가주택 대지230㎡ 건물 716㎡ 감정가7억5천 최저가5억2천

단독주택

▷ 북구 용봉동 용봉IC 인근 2층단독주택 대지 160㎡ 건물193㎡ 감정가1억1천3백 최저가1천3백

▷ 남구 방림동 2층주거지역 단독주택 대지251㎡ 건물152㎡ 감정가1억9백 최저가1천6백

▷ 남구 칠석동 주거지역 단독주택(전원주택적 학) 대지505㎡ 건물140㎡ 감정가1억3백 최저가8천2백

▷ 장성 활동면 관리지역 단독주택 대지823㎡ 건물235㎡ 감정가1억1천 최저가17천8백

공장

▷ 북구 용전동 대지215㎡ 건물1543㎡ 감정가 22억7천4백 최저가18억2천

▷ 장성 동화면 대지6300㎡ 건물1365㎡ 감정가 14억2천 최저가6억3천5백

토지 매매

▷ 동구 내남동 주거지역 도심근교(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 최상 대지750㎡

▷ 무안 해제면 계획관리지역 마을내 전망 좋음 전3643㎡ 전3643㎡ 전3643㎡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탑공인중개사

(서구 광천동 650-205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광주전역 원룸 매매 전문

서·광산·남·북·동구지역 금매물건 다양정보

1) 환경정동, 환경역세권, 4층 대지261㎡ 건물436㎡, 위치최고, 남향, 원룸, 복사, 투룸, 2개, 쓰리룸, 인접, 건축3년

2) 환경동, 환경역세권, 4층, 대지250㎡, 건물435㎡, 남향, 원룸 14개, 쓰리룸 2개, 위치최고, 남향, 건축 1년, 매6억5천만원/보증금3억원/월세500만원, 월지1억5천만원

3) 생활동, 신죽동, 4층, 원룸, 1층상가, 월18개, 위치최고, 대지260㎡, 건물520㎡, 대로변, 매5억9천만원/보증금4000만원/월세500만원, 월지1억5천만원

4) 금호동, 멀지골목, 4층, 원룸, 남향, 원룸 6개, 투룸 6개, 안집, 남향, 대지270㎡, 건물370㎡, 원집5.6억7천만원(보12000만원/월세400만원, 원지1억3천만원)

5) 동성동, 신죽동, 4층, 원룸, 1층상가, 월18개, 위치최고, 남향, 건축3년, 매6억5천만원/보증금5000만원/월세500만원, 월지1억5천만원

6) 중흥동, 전대정동, 신죽동, 4층, 원룸, 1층상가, 대지245㎡, 건물490㎡, 원집409㎡, 원지148㎡, 월지1억5천만원(보증금6000만원/월세500만원, 월지1억5천만원)

7) 용봉동, 4층, 원룸, 대지268㎡, 건물401㎡, 원집13개, 투룸 6개, 쓰리룸 3개, 남향, 원집5.6억7천만원(보증금5000만원/월세500만원, 월지1억5천만원)

8) 중흥동, 신죽동, 4층, 대지210㎡, 건물410㎡, 원집12개, 투룸 3개, 남향, 원집5.6억7천만원(보증금3000만원/월세500만원, 월지1억5천만원)

9) 오수동, 4층, 원룸, 대지260㎡, 건물390㎡, 남향, 원집12개, 투룸 6개, 개별화장실, 건축1년, 매6억8천만원/보3억/월4500만원, 월지9억

10) 신기동, 4층, 원룸, 남향, 위치최고, 대지202㎡, 건물385㎡, 원집4개, 투룸 4개, 쓰리룸 1개, 최고급인접, 매4억6천만원(보증금6000만원/월세260만원, 인집별도)

☆ 매도/매수하실 분은 상담확인★

☆ 비밀절대보장, 신속한업무처리★

☆ 수익률 10% 이상 물건 진행★

★ 구인: 원룸/상가임대/설립한분모심★

062) 368-0789, 010-3671-7145

금당 공인중개사

건물매도